

2026 KBO 리그의 출발선인 시범경기가 12일 대전(삼성-한화), 광주(SSG-KIA), 사직(KT-롯데), 마산(LG-NC), 이천(키움-두산) 등 5개 구장에서 일제히 막을 올린다. 삼성은 한화전(12~13일, 대전)을 시작으로 두산(14~15일, 잠실) SSG(16~17일, 문학) NC(19~20일,

12일 5개 구장 일제히 개막
24일까지 팀당 12경기 진행
삼성, 한화와 첫 대결 펼쳐

창원) LG(21~22일, 대구) KIA(23~24일, 대구)와의 일정이 잡혀 있다.

시범경기는 개막전부터 24일까지 팀당 12경기씩 총 60경기가 편성되며, 연장전과 더블헤더는 실시되지 않는다. 이번 시범경기에는 2026시즌 적용 규정이 모두 반영된다. 피치클락은 투구 간격을 전년 대비 2초 단축해 주자 없을 때 18초, 주자 있을 때 23초로 운영된



2026년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12일 막을 올린다. 사진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전경.

삼성 라이온즈 제공

다. 비디오 판독 범위도 확장된다. 지난 시즌 중간 도입된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은 팀당 2회 신청, 반복 시 기회 유지 방식으로 올해도 시행된다. 여기에 2루와 3루에서 발생하는 '전략적 오버런'이

새롭게 비디오 판독 대상에 포함된다. 판독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1·2루심이 무선 인터컴을 착용하는 점도 변화다.

부상자 명단 규정도 손질됐다. 각 구

단은 시범경기 개막일 이후 경기 및 훈련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해, 개막전 엔트리 공시 3일 이내에 해당 선수의 부상자 명단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KBO리그는 2년 연속 1천만 관중을 돌파

파했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관중 신기록인 1천231만2천 명을 기록했다. 그 분위기는 지난해 시범경기부터 이어졌다. 총 42경기에 32만1천 명이 입장하며 역대 시범경기 최대 관중 기록을 세웠고, 경기당 평균 7천661명 역시 역대 최고치였다. 시범경기는 1983년부터 열려

피치클락 투구 간격 단축
비디오 판독 범위 확대 등
시즌 적용 규정 모두 반영

코로나19로 취소된 2020년을 제외하고 매 시즌 개최돼 왔다.

역대 시범경기 1위팀의 한국시리즈 우승은 6차례로, 1987년 해태, 1992년 롯데, 1993년 해태, 1998년 현대, 2002년 삼성, 2007년 SK가 시범경기 1위 이후 우승까지 연결했다. 반면 지난해 한국시리즈 우승팀 LG는 시범경기 5위였다. 박준우 기자

대구FC, 최장신급 공격자원 '데커스' 영입

장애유형별 체육활성화·종목 저변 확대 기대 ↑

대구FC가 11일 스코틀랜드 1부 킬마녹 FC에서 뛰던 잉글랜드 국적 스트라이커 데커스(23)를 영입하며 2026 시즌 승격 도전에 전력을 보냈다. 데커스는 201cm, 93kg의 체격을 앞세워 공중볼과 지상 경합에서 강점을 지닌 최장신급 공격 자원으로 평가된다. 구단은 큰 키에도 빠른 스피드와 뒷공간 침투, 공을 지켜내는 플레이를 갖춘 점에 주목해 공격 라인의 새로운 옵션으로 낙점했다.

2003년생인 데커스는 솔퍼드 시티 FC에서 프로 데뷔한 뒤 사우스엔드 유나이티드 FC, 모어캠비 FC, 체스터 FC 등을 거치며 경험을 쌓았고, 2025년 7월 킬마녹 FC 이적으로 기량을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박스 안팎에서 과감한 슈팅을 시도하고, 크로스 상황에서 헤딩 능력이 강점인 만큼 대구의 득점 루트 다변화에 기여할지 관심이 쏠린다.

데커스는 "대구FC에 오게 돼 흥분되고 기대가 크다. 훌륭한 경기장과 열정적인 팬들을 보유한 구단인 걸 확인했다. 하루빨리 팬들과 만나 대구IM뱅크PARK의 분위기를 느끼고, 많은 골을 넣어서 승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데커스는 대구FC 공식 지정병원인 으뜸병원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마치고 입단 절차를 완료했으며, 선수단에 합류해 K리그 데뷔 준비에 들어갔다. 박준우 기자



스코틀랜드 1부 킬마녹 FC서 활동
201cm, 93kg...공중볼·지상 경합 강점
빠른 스피드까지 겸해 팀 공격력 강화

대구FC 제공

경북장애인체육회 대의원총회 시각장애인연맹 '정가맹' 승인

경북도장애인체육회(회장 이철우)가 최근 도내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전년도 성과 점검과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총회는 재직 대의원 30명 중 22명이 참석했으며, 안용우 경북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총회에서는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를 비롯해 △2025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심의 △이사 선임 권한 회장 위임(안) △경북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정가맹단체 가맹 승인(안) 등을 심의했다. 체육회는 한 해 동안 추진된 장애인체육 정책과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인했으며, 이사 선임 권한 위임을 통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북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의



경북도장애인체육회가 지난달 24일 '2026년 정기대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도장애인체육회 제공

정가맹 승인으로 장애유형별 체육 활성화와 종목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용우 상임부회장은 "이번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체육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장애인체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도내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아프리카와 동행

연합뉴스가 공적 역할의 영역을 이제 아프리카로 넓힙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는 우분투(UBUNTU) 정신을 바탕으로 한 아프리카를 끈끈하게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